

2005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道政演說



심 대 평 (충남도지사)

존경하는 200만 道民 여러분!

그리고, 박동운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議會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道政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충남발전과 道民복지를 위해 힘써 오시고 道政의 주요 현안을 함께 풀어 나가는데 앞장서 오신 議員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議員님 여러분!

「民選 3期」 자치도정이 출범한지 3년차 되는 금년 한해 우리 道政은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충남의 이미지를 높여 왔습니다. 충남의 미래적 역할을 담은 「충남, Heart of Korea」를 월드브랜드로 제정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高품질 충남경영」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행정품질을 고급화하고 道民의 신뢰를 얻어 충남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시책들이 하나 하나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우리道가 처음으로 시작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충남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2001년말 4,735개였던 제조업체를 1,800여개나 더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수출 또한 같은 기간동안 116억불에서 217억불로 101억불이 증가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국가지방재정제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도의 예산도 전국 최초로 「사전재원배분제도」에 의하여 편성하였는가 하면, 도議會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도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지역현안으로 넘겨져왔던 숙원사업들도 마무리 되어 새로운 지역발전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4년을 끌어왔던 당진~평택간 해상도界 분쟁이 우리도의 승소로 일단락되어 唐津港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보철강」 문제도 운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지역경제 再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도내에 내린 100년만의 「暴雪被害」를 딛고 일어서 단보당 쌀생산 전국 1위를 8년째 견지해온 것은 우리도民의 저력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림부가 주관한 「전국 쌀大축제」 품평회에서 「아산 맑은쌀」이 최고의 영예인 大賞을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소비자단체에서 태안 「황금빛 노을쌀」을 가장 우수한 쌀로 선정함으로써 충남쌀이 재배기술 뿐만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전국 최고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정개혁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地方分權 선도지역으로서 워크숍과 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知事를 포함한 도청공무원들이 「現代인재개발원」에서 변화와 혁신의 기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地方分權시대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도 지난 8월 확정하였습니다. 분권 시대에 걸맞도록 道政혁신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필요한 일 버리기」등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취와 보람들은 200만 道民과 議員님들께서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違憲판결을 받아 추진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큰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議員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北美관계의 긴장, 高유가, 환율 하락 등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10년이면 中國의 기술수준이 우리를 앞지르게 되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6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일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35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성 저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각기 지역의 특색을 살려 특성화 된 발전을 추구하면서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국가간 경쟁보다 地域과 地域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2005년도 우리道の 시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민선체제를 마무리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은 「新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없는 추진 등 21세기 충남의 미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道政은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의 큰 틀 위에서 「고품질 충남경영」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 Heart of Korea의 꿈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길에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道가 펼쳐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제일 道政」을 활력있게 추진하여 충남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忠南經濟는 산업생산 증가율 1위, 수출 200억불 돌파 등 역동적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성장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우리충남이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구조를 한층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동북아 자동차부품 생산기지」를 목표로 서산·홍성·보령에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하는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부품표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 R&D집적화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지역별 생산집적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아산을 전기전자 단지, 서산·당진을 자동차 단지로, 서해안을 메카트로닉스 단지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내년부터 본격 양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그 성과를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아래 천안의 PDP, 아산의 LCD, 홍성의 OLED단지를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둔포지역에 전자정보산업이 집적화된 복합도시형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분야의 신기술개발과 기술융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이 절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노산업과 IT, BT 등 융합신기술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 연구협력단」을 구성 운영하고, 건립중인 나노팹(Fab)을 중심으로 상용화된 나노기술을 확산시켜 道内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感性이 중시되고 웰빙을 주제로 한 마케팅전략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道内대학과 충남 테크노파크를 상호 연계한 「디자인혁신센터」를 유치 건립하여 디자인 기술발전의 모태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혁신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민원을 처음부터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민원처리 전담팀」과 「찾아가는 기업지원팀」을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新벤처정책」과 연계하여 창업지원과 규제간소화 등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農漁業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DDA와 FTA등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의 「농정大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맞춤농정 7대 혁신과제」를 정부의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형 농어업을 이끌어갈 핵심리더로 「1마을 1CEO」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영농희망 대학생을 「창업농 인턴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웰빙시대의 안전 농식품 선호추세에 맞추어 「안전농산물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벤처형 농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농민들에게 가능성과 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전략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조시설과 저온보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충남쌀 명품 만들기」의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청정道」의 이미지 구축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확립과 함께,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처음 선을 보인 고품질 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적극 육성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지방어항에 대한 집중 투자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주5일 근무시대」의 관광기능을 가미한 新개념의 어촌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6금산 세계인삼EXPO」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제인삼시장의 유통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등 뿌리깊은 문화유적과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감동을 주는 충남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롭게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특색있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무공해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 금산 인삼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 「지역축제」와 「지역특산품」을 상호 연결시켜 「소득있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일부 개장과 함께 「세계사물놀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백제문화사 大系」를 총정리해 나가는 장기사업에 착수함으로써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역사성 있는 문화재와 교량, 건축물 등에 대해 세련되고 격조높은 경관조명을 실시하여 「야간 볼거리」로 제공함으로써 「체류관광」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밝고 아름다운 충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Heart of Korea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道의 이미지를 한층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내 여윌공간을 활용한 「그린 충남파크」 조성 and 생태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재래시장이든 해수욕장이든 道内 어느 곳을 가더라도 깨끗하고 수준높은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는 한편, 道路안내표지판을 개선하고, 오래된 문화재 안내판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하여 「감동을 주는 충남관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금년 8월부터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투자가를 물색하여 「국제적인 고품질 관광지」를 지향해 나가면서, 대부초지의 개발과 함께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축제개발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이후 전국체전에서 줄곧 上位입상하여 道民의 자긍심을 높여왔던 충남체육이 금년에는 다소 떨어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년도에 再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하지 못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종목별 「팀」을 쇄신하고 우수선수를 선발·육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에 열리는 「全國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을 계기로 「體育雄道」의 모습을 확고히 하고,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 「스포츠 마케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는 아직도 행정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함께, 우리 道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내실있게 정착시켜 우리의 사랑과 관

심으로부터 소외되는 道民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책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 전개와 「장애인 브라스밴드」 창단 등 피동적인 장애인시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봉사에 참여케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람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老人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대화역의 중심역할을 하였던 보람을 잃지 않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증대사업과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건강하고 윤택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시책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어린이人性 학습원」을 2006년 개원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면서, 「영어장애가 없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영어체험캠프」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는 남호주와 캐나다의 캘거리 교육청과 협력하여 원어민 강사에 의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어 체험마을」과 「외국어 교육특구」로 발전시켜감으로써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영어·일어·중국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女性の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보육서비스의 質을 높여 나가면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푸른 충남」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푸른 산을 가꾸고, 「바다가꾸기 사업」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깨끗한 금강수질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忠南」 실현기반을 앞당기겠습니다.

금년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3차 道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충남2020 정책비전」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道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하나 하나 달성해 가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道에는 아직도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낙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중, 우선 내년에는 청양, 금산, 부여, 서천 등 4개郡을 대상으로 「新활력지역」으로 개발하여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道內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충남발전의 기폭제가 될 「대단위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호안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9월 착공할 계획이며, 석문국가산업단지, 토지공사 주관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만권배후 신시가지」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동시 추진키로 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입체교통망은 道전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망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道廳移轉」사업은 新행정수도 건설과는 별개로 道內의 균형발전과 도민편의를 위하여 필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억제,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체계 정립, 그리고 우리도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 등 합리적인 로드맵을 보완 용역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안전」과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사전 예방과 대처능력을 높여나가되, 道民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道路의 위험구간이나 노후 교량, 재해상습지를 해소하는데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미흡했던 화학차 보강사업 등을 통해 소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道民위주의 行政革新으로 「선진自治道政」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시행으로 분권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어느 市·道보다도 선도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우리도가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언론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여 분권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마인드를 고취시켜 나가고, 민·관 합동의 「지방분권연구단」을 발족하여 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대한 지방차원의 대응전략도 실효성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도가 추진해 온 「ISO 9001」과 「Single - PPM」, 행정서비스현장 실천 등을 상호 연계하여 道政革新운동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처리지연 민원사례들을 발굴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결재·보고·회의 등에 있어 비능률적이거나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新행정수도 건설」추진을 관철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新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지막 代案으로 선택된 국가정책입니다. 지난 40여년간 500여개의 시책을 펴어도, 이른바 百藥이 無效였던 수도권 문제를 풀기 위한 千年大計인 것입니다. 충청권 道民들의 피해와 자존심 차원을 넘어 「新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新행정수도 건설의 違憲판결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별도의 대안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충청권 民心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임시방편적 발상이며 「新행정수도 건설」의 본질과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예정부지 2,160만평을 매입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충청권의 변함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新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충청권 500만 市·道民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新행정수도 재추진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新행정수도 건설」의 전도사가 되어 東과 西, 수도권과 지방을 넘나들면서 新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조 555억원, 특별회계 4,681억원 등 총 2조 5,236억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4% 증가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사전재원배분제에 의한 「高품질 道政」을 구현하고,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민선출범 당시 1,869억원이었던 지방채를 내년말까지는 1,000억원 미만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다음 道知事가 道政을 펴나가는데 재정적 장애가 없도록 건전재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을 최소화 하는 한편, 道民의 삶의 質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 SOC확충 분야를 크게 증액했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양성에 1,577억원, 참여복지 실현에 5,074억원, 농어촌 건설에 3,900억원,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1,146억원, SOC확충에 5,577억원,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에 3,213억원, 문화, 관광, 체육진흥에 1,085억원, 자치역량 강화에 2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道民여러분!

그리고, 박동운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님 여러분!

이제 40여일만 있으면 2005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동트기 前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어둠을 헤치고 나가면 밝은 광명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를 굳건히 이겨내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이 그랬고,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과 의지를 모아 21세기 「위대한 충남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섭시다.

장시간 저의 도정연설을 청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청남도지사 沈大平

총 2조 5천억원 지난해 대비 7.4% 증가

「고품질 충남 경영」역동적 추진

- 2005년 도정예산 설명 -

□먼저 2005年度 經濟展望과 財政與件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인상,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습니다.

그러한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진다면 지방세수 전망 또한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시설확충 등 지방재정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어 2005년도 경제 운영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도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재정여건상 투자가 미흡하였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방어항건설, 상수도확충, 공중화장실관리 등 지역경제와 도민생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來年度 豫算編成의 特徵을 말씀드리면

새해예산은 지방양여금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변화된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도민욕구의 수용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서 분야별로 「도정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도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우리도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되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형평을 기하고 우리 도의 미래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이 도에 예산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예산의 代議民主主義의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來年度 豫算(案) 規模입니다.

새해예산안은 총 2조 5,23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2조 3,502억원보다 7.4%(1,734억원)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정부예산과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9.2%(1,725억원)가 증가된 2조 5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2%(9억원)가 늘어난 4,6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2004년도 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이월금의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도 예산안	구성비	2004년도 예산안	구성비	증 감	%
계	25,236	100.0	23,502	100.0	1,734	7.4
일반회계	20,555	81.5	18,830	80.1	1,725	9.2
특별회계	4,681	18.5	4,672	19.9	9	0.2

□다음은 一般會計 豫算案의 內容입니다.

〈 먼저 歲入豫算案에 대하여 說明드리면 〉

	자체재원	의존재원	지방채
(2005년도) 2조 555억원	6,772 (32.9%)	1조 3,783 (67.1%)	0
(2004년도) 1조 8,830억원	5,683 (30.2%)	1조 3,147 (69.8%)	0

- **자체재원** 은 총규모의 32.9%인 6,77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9.2%인 1,08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5,350억원으로 금년도 4,620억원보다 15.8%가 늘었고, 세외수입은 1,442억원으로 올해 1,063억원보다 33.8%가 증가되었습니다.

- **의존재원** 은 총규모의 67.1%인 1조 3,78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8%인 636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2,248억원과 지방교부세 411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 수입이 2,023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지방채는 '0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신규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 2005년도 말에는 1,000억원 미만으로 줄여나가면서 기존 채무중 고율의 지방채를 저이율의 통합기금 여유자금을 활용 차환 상환하여 연간 이자부담을 6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무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전망〉 : '95년말 1,869억원 '00년말 4,238억원
'04년말 1,520억원 '05년말 972억원

〈歲出豫算案의 內譯을 보면〉

	사업예산	경상예산	기 타
(2005년도) 2조 555억원	1조 7,102 (83.2%)	1,872 (9.1%)	1,581 (7.7%)
(2004년도) 1조 8,830억원	1조 5,586 (82.8%)	1,813 (9.6%)	1,431 (7.6%)

- **사업예산** 은 총규모의 83.2%인 1조 7,102억원으로 금년도 1조 5,586억원 보다 9.7%인 1,51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대 하였기 때문입니다.
- **경상예산** 은 총규모의 9.1%인 1,872억원으로
 - 인건비는 동결하되 정액급식비, 위험수당, 관리업무수당에한하여 각 1만원씩 인상하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혁신담당관실등 기구가 증설되거나 인원이 늘어난 부분 외에는 모두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금년도 예산 1,813억원 대비 3.3%(59억원)만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상예산** 는 총규모의 9.1%인 1,872억원으로 금년도 1,431억원 보다 10.5%인 150억원이 늘어났으며
 - 내용은 시군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 1,165억원,채무상환 175억원, 예비비 241억원 입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豫算案의 內容입니다.

〈먼저 特別會計 豫算의 規模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681억원으로 금년도 4,672억원보다 0.2%인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총규모의 45.5%에 해당하는 2,131억원으로 금년도 1,924억원보다 10.8%인 20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54.5%인 2,550억원으로 금년도 2,748억원보다 7.2%인 19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一般 特別會計豫算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32.1%인 1,504억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심사수수료 1,499억원과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②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1%인 50억원이며 운영비 12억원, 관광지개발사업비 10억원, 채무상환비 28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③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는 전체의 6.3%인 296억원이며 금강지류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비 60억원과 금강지류하천 개수사업비 61억원, 예비비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④ 청양대학 특별회계는 전체의 1.3%인 62억원이며 인건비 24억원과 학사운영비 15억원, 다목적회관 신축비등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전체의 2.5%인 118억원이며 대전~복수간 도로공사비 108억원과 국고 귀속금 4억원 및 예비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⑥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2.2%인 101억원이며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99억원과 징수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公企業 特別會計 內譯으로〉

① 도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전체의 6.5%인 304억원이며 부채상환금등 5억원과 예비비 2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②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48.0%인 2,246억원이며기금융자 1,390억원과 공채상환 625억원, 공채상환이자 216억원, 예비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來年度 基金運營計劃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5,440억원으로 금년도 8,795억원보다 38.2%가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가 감소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이자율이 높은 정부차입금을 금년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고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통합기금 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의 예탁금이 감소되어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도	%	2004년도	%	증 감	%
합 계	5,440	100.0	8,795	100.0	△3,355	△38.2
통합기금	2,517	46.3	3,810	43.3	△1,293	△33.9
여성발전복지기금	32	0.6	31	0.3	1	3.1
감채기금	0	0	43	0.5	△43	△100
문화예술진흥기금	43	0.8	43	0.5	0	0
청소년육성기금	34	0.6	34	0.4	0	0
농어촌진흥기금	171	3.1	167	1.9	4	2.4
중소기업육성기금	2,118	38.9	4,177	47.5	△2,059	△49.3
사회복지기금	42	0.8	42	0.5	0	0
재해구호기금	200	3.7	191	2.2	9	4.7
난치병치료후원기금	19	0.3	19	0.2	0	0
식품진흥기금	81	1.5	78	0.9	3	3.8
재난관리기금	183	3.4	160	1.8	23	14.4

□다음은 明示移越과 繼續費事業입니다.

〈먼저 明示移越事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정비등 8개사업비 231억원은 1년이상 공사 또는 용역과업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지방도위험도로개선	50억원	· 교통사고잡은곳개선	1억원
· 어린이보호구역정비	4억원	· 제4차충남권관광개발계획	2억원
· 지방도정비	51억원	· 지류하천개수	60억원
·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	3억원	· 금강지류하천정비계획수립	60억원

〈이어서 繼續費事業으로서〉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등 6개사업비 1,155억원은 사업완료시까지 3년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도정예산

· 축산시험장이전	22억원	· 백제역사재현단지	151억원
· 국가지원지방도(7지구)	570억원	· 가야산순환도로개설	30억원
· 대전-북수간광역도정비	88억원	· 지방도정비(8지구)	294억원

□다음은 分野別 主要投資事業입니다.

- ① 지역경제활성화에 전체예산의 4.5%인 1,146억원을 편성하여 신나게기업하는 충남만들기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에 역점을 두었고 우리도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산업클러스터구축과 관련하여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 등 건설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분야별>			
· 산업시설확충과 기술개발	371	· 충남의 전략산업육성	298
· 중소기업경영안정	430	· 해외시장개척 등 국제교류	47
<주요시책>			
· 공공근로	18	· 재래시장환경개선	111
· 고용촉진훈련	18	·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건립	76
·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건립	109	· 찾아가는기업지원팀운영	1
· 산업단지공업용수시설	52		

- ② 농어업 분야는 전체예산의 15.5%인 3,90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21C형 농어업을 이끌어갈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1마을 1CEO 양성과 창업농인턴제를 추진하고 벼건조 보관시설과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추진하여 고품질쌀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중점 확보하고 금산인삼엑스포와 벤처농업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방어항건설, 숲가꾸기사업 등을 반영함으로써 농어촌의 생산기반 및 환경기반 확충을 꾀하는 한편 맑고 푸른 환경을 확충하여 도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Green충남Park 조성사업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		(단위 : 억원)	
· 농업유통 및 생산지원	1,402	· 축산업진흥	129
· 농업기반시설 확충	1,438	· 어민소득증대	243
· 산림자원화	502	· 농업기술개발보급	186
〈주요시책〉			
· 1촌 1CEO교육	0.5	· 환경보전형비료공급	84
· 창업농인턴제	0.7	· 축산분뇨처리시설	18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7	· 지방어항건설	60
· 농업테크노파크운영	6	· 벤처농업박람회준비	36
· 벼건조저장시설	36	· 숲가꾸기사업	123
· 인삼엑스포지원	83	· 그린충남파크조성	32

③ 복지 · 여성분야에 전체예산의 20.1%인 5,074억원을 계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자녀교육사업,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등의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사업비를 계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보육시설기능보강 등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분야별〉		(단위 : 억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4,310	· 도민건강증진 313
· 노후생활보장	423	· 여성지위향상과가정폭력방지 28
〈주요시책〉		
· 저소득층생계주거급여	1,400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0
· 저소득층의료급여	1,503	· 저소득층영유아 보육료 260
·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5	· 노인일거리창출 13
· 장애인자녀교육	2	· 장애인브라더스운영 0.5
· 장애인체육활동지원	25	·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302
· 여성정책개발원운영	11	

2005년 도정예산

- ④ 지역개발분야에 전체예산의 22.1%인 5,577억원을 편성하여 충남발전의 기폭제가 될 대단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가야산순환도로건설, 백제큰길연결도로건설, 지방도정비, 오지마을종합개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등의 사업비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단위 : 억원)	
· 도로망및교통시설확충	1,792	· 균형발전촉진	3,350
· 신활력지구개발	90	· 주거기반및환경개선	345
〈주요시책〉			
· 가야산순환도로건설	30	· 지방도정비	495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95	· 백제큰길연결도로건설	60
· 안면도꽃지공원사업비	5	· 국가지원지방도정비	570
· 오지종합개발	143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247
· 도로표지판정비	5		

- ⑤ 문화·체육분야에 전체예산의 4.3%인 1,085억원을 반영하여 감동을 주는 관광실현과 도민 건강증진·사기진작, 그리고문화창달을 위해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문화유적정비, 고도옛모습되살리기, 생태녹색자원개발, 공공박물관건립, 전국체전선수육성강화, 세계사물놀이 대축제등의 사업비를 중점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단위 : 억원)	
· 문화예술진흥	165	· 문화유적의 보존과 정비	271
· 관광지개발	245	· 충남체육진흥	226
· 백제문화권개발	170	· 도의정신함양	8
〈주요시책〉			
· 충남고도옛모습되살리기	124	· 역사문화원 수장고 신축	30
· 백제문화유적정비	65	· 지방문예회관건립	10
· 생태녹색자원개발	16	· 문화관광축제	12
· 공공박물관건립	29	· 세계사물놀이대축제	4
· 백제사대계편찬	3	· 격조 높은 경관조명	5
· 관광지개발	73	· 생활체육공원	25
· 예술단운영	46	·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강화	67

⑥ 생활안전분야는 전체예산의 12.7%인 3,213억원을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로개선,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교통사고찾은곳개선, 재해위험지구정비, 수해상습지개선, 119구급장비보강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단위 : 억원)	
· 재해예방과도민생활안전	907	· 환경오염예방	257
· 맑은물공급과환경기초시설	1,753	· 금강종합개발	296
〈주요시책〉			
· 위험도로개선	191	· 재해위험지구정비	123
· 어린이보호구역정비	54	· 수해상습지개선	290
· 교통사고찾은곳개선	10	· 119 구급장비보강	41

⑦ 미래인재육성에 전체예산의 6.2%인 1,577억원을 계상하여 영어 언어장애가 없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어캠프 운영,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대학생해외체험 연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운영 등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단위 : 억원)	
· 교육재정지원과혁신역량강화	1,465	· 청소년건전육성	20
· 청양대학운영	67	· 청소년문화체육공간조성	25
〈주요시책〉			
· 영어캠프운영	2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11
· 청소년수련관건립	15	· 청소년문화의집건립	6
· 청소년상담실운영	5	· 충청남도학생기숙사운영	4
· 대학생해외체험연수	0.6		

⑧ 자치역량강화에 전체예산의 0.8%인 212억원을 반영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국외훈련사업, 업무혁신을 위한 MT,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주민정보화기초교육, 충남정신발양, 행정정보화 시스템구축, 자원봉사활동지원, 도의새마을을 위탁교육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 도정예산

〈분야별〉		(단위 : 억원)	
· 지방분권혁신과정정책개발	89	· 유비쿼터스지향기반구축	104
· 의정활동	18	· 도정성과 홍보	1
〈주요시책〉			
· 공무원직무능력향상 교육	5	· 주민정보화기초교육	1
· 공무원국외훈련	1.3	· 충남정신 발양사업	3
·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4	· 자원봉사활동지원	2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0	· 업무혁신을위한 MT	0.3

尊敬하는 朴東允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

□지금까지 내년도 豫算(案) 및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하여 概略的으로 說明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年度 豫算(案)의 編成趣旨와 內容을 깊이 헤아리셔서 審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